KOREAN J. FOOD & NUTR.
Vol. 13. No. 4, 365~371(2000)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

안 용 근
충청대학 식품영양과

Korean's Recognition on Edibility of Dog Meat

Yong-Geun Ann
Dept. of Food Nutrition, Chungcheong College, Wolgokri 330, Kangnae, Cheongwon, Chungbuk 363-792, Korea

Abstract

After making a survey of edibility of dog meat on 963 male adults and 539 female adults, totalled 1,502 persons, the results were primarily divided into ages and sexes, dealing with statistics by Statistical Analys System. As a result, those who had eaten dog meat is average 83%, among them male adults is 91.9%, female adults is 67.9 %. The reason they have dog meat is as follows: in case of male adults "Following others going to dog meat restaurant and eating" shows high of 34.7 %, in female, "following family members who eat dog meat at home and eating" is most in the figure of 25.6%. Average 86.3 % favors edibility of dog meat, and among them, male is 92.3% and female 72.1%. The highest reason that male or female who opposed to edibility of dog meat is for being inhumane. 79.5% of male and 64.9 % of female know the fact that edible dog is exceptionally bred. The respondents answered most that dog meat was purchased from market. The first reason for objection to the criticism of eating dog meat is that male and female commonly answered most that 'As dog meat food is our traditional food culture, it is not the problem to be found fault with by others.' The second reason for that is followed by its deliciousness.

Key words : dog meat, dog meat eating in Korea, Bosintang.

서 론

우리에게는 개고기를 식용하여 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복날에는 보신탕을 먹고, 충청남도의 부여, 서천, 청양, 보령 지방에서는 장례식, 회갑, 생일 때는 개를 잡아서 손님들을 접대한다. 전국 각지에는 무수한 보신탕집이 성업중이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요리책에 무수한 개고기 요리법[1~24]이 있었다. 이 같이 개고기 식용문화는 우리의 전통과 생활 곳곳에 깃들어 있다.

정부는 외국 여론의 비난이나 올림픽 대회 불참 등의 이유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고 보신탕집을 대도시에서 내몰고 보신탕이라는 말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 뒤부터 개고기 식용 찬반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전보[25~26] 및 한국인과 개고기라는 저서[27]를 통하여 우리 나라 및 외국의 개고기 식용 역사 및 문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 개 및 개고기와 관련된 말, 설화 및 꿈, 식용견, 개고기의 영양가 및 약효, 조선 시대 및 현대의 개고기 음식, 새로운 개고기 음식, 개고기 식용 반대의 비논리성, 개고기 논쟁의 구조적 문제, 개고기 음식의 세계화 등을 밝히고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고유 문화이므로 논쟁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개고기 식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단편적인 결과만 있을 뿐 체계적으로 조사된 결과가 없어서 어느 쪽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본 결과는 한국 국민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과 인식을 살피기 위하여 1,500여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 Corresponding author : Yong-Geun Ann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86%가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개고기 음식이 우리의 전통음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개고기 식용에 대한 공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험 재료 및 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충청대학 식품영양과에 재학하는 학생 240명에게 설문서를 나누어 주고 1999년 3월부터 1999년 9월 말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개고기에 관련된 설문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남자 963명, 여자 539명 총 1,502명으로부터 설문서를 받았다.

2. 조사 방법

설문 조사 내용은 개고기를 먹어 본 경험,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개고기 식용 반대의 이유, 식용견에 대한 인지, 개구입 및 잡는 방법, 개고기 식용 찬성에 대한 이유 등이었으며 내용에 따라서는 답은 두 개 이상이라도 상관 없는 것도 있었다.

이들 자료는 일차적으로 연령별, 성별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3. 통계처리

위에서 정리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28]를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설문결과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test를 하였다. 그러나 통계 처리하기 힘든 데이타는 그대로 실었다.

결 과

1. 개고기를 먹어 본 경험

개고기를 먹어 본 일이 있는가 조사한 결과, Table 1과 같이 1,502명 중 1,251명, 즉 83%가 먹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남자는 91.9%가, 여자는 67.9%가 먹어보았다고 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식용 경험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개고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먹어본 경험이 많아서 40대, 50대, 60대에 가장 높은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2.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Table 2와 같이 남자의 경우는 '남을 따라 보신탕집에 가서(34.7%)>몸이 약하여(25.3%)>정력에 좋다고 하여(17.4%)>집에서 먹기 때문에(15.6%)>호기심으로(7.1%)'의 순서를 보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집에서 먹기 때문에(25.6%)>남을 따라 보신탕집에 가서(25.3%)>몸이 약하여 약으로(12.4%)>호기심으로(12.3%)>정력에 좋다고 하여(6.4%)'의 순서를 나타냈다. 답은 여러 개라도 상관없었다. 결과는 유의성이 있었다($P<0.001$).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남녀 모두 50% 이상이 타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Table 1. Experience of having eaten dog meat

Age	Male			Female			Total		
	Yes	No	Total	Yes	No	Total	Yes	No	Total
Teens	3	3	6	6	3	9	9	6	15
Twenties	191	33	224	138	100	238	329	133	462
Thirties	229	14	243	55	27	82	284	41	325
Forties	230	11	241	93	28	124	258	39	362
Fifties	158	12	170	57	9	66	209	21	230
Sixties	57	3	60	13	5	18	70	8	78
Seventies	17	2	19	10	1	11	27	3	30
Total	885	798	963	366	173	539	1,251	251	1,502
(%)	91.9	8.1	100.0	67.9	32.1	100.0	83.3	16.7	100.0
χ^2				*142.975					

* $p<0.001$

Table 2. The reason for having eaten dog meat

Reason	Sex	Age							Total	(%)	Total (M+F)	(%)	χ^2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Seventies					
As medicine for being weakness	M	3	56	79	83	79	28	12	340	25.3			
	F	1	29	20	31	31	6	6	152	12.4	464	26.3	
As it is wellknown for its effectiveness as atonic	M	2	54	62	53	49	11	3	234	17.4			
	F	1	6	6	5	8	1		27	6.4	261	14.8	
As it is eaten by family members	M	1	69	51	35	32	15	7	210	15.6			
	F	1	39	19	31	10	5	3	108	25.6	318	18.0*	63.674
Following others going to dog meat restaurant	M	2	80	148	130	72	28	6	466	34.7			
	F	2	30	18	40	18	3		111	25.3	577	327	
Owing to curiosity	M		32	17	19	16	10	1	95	7.1			
	F	2	17	14	8	9	2		52	12.3	147	8.3	
Total	M									1,345	(76.1%)		
	F									422	(23.9%)		

* P<0.001: M, male: F, female

개고기를 먹는 데 대하여 남자는 92.3%가 찬성하였고 여자는 72.1%가 찬성하여 남자의 빈도가 높았다. 반대는 남자 7.7%, 여자 13.7%를 나타냈다. 여자의 나머지 부분은 무응답자들이지만 구태여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남녀 평균하여 찬성은 86.3%, 반대는 13.7%를 나타냈다. 한편 다른 설문 조사 결과들도 대부분 70~90%의 범위에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 결과는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한편, 연령별로는 30대로 갈수록 찬성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은 나이 든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는 유의성을 나타냈다(P<0.001).

이 같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데 반하여 정부 당국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고기 식용을 혐오함으로 개고기 식용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27].

4. 개고기 식용 반대의 이유

반대자들에게만 반대의 이유를 물은 결과, 남자는 비인간적 > 야만적 > 비위생적 > 징그럽다 > 종교적 이유 > 외국인에게 부끄럽다의 순서를 보였고, 여자는 비인간적 > 종교적 이유 > 징그럽다 > 비위생적 > 외국인에게 부끄럽다의 순서를 보였다. 답은 여러 개라도 상관 없었다. 그러나 결과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 결과에서 보듯이 개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외국인의 시각을 의식하여 안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인간적이라든가 야만적이라는 이유가 가장 비중이 크며, 이것은 외국의 시각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므로 본인은 의식하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식용견에 대한 인지

1,5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식용견을 별도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설문 조사한 결과 남자는 응답자의 79.5%가, 여자는 64.9%가 알고 있었다. 식용견을 별도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고기 식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유의성이 있었다(P < 0.001).

외국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공격하는데 대하여 한국인들 중에는 한국에는 식용견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여 비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많다.

6. 개구입 및 잡는 방법

개구입 방법 및 잡는 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잡아놓은 것을 시장에서 사다 먹는다'는 답이 5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서 직접 잡기>개장사에게 의뢰하여 잡기>기르던 개 잡기'의 순을 나타냈다. 여자의 경우도 잡아놓은 것을 시장에서 사 오는 것이 50.9%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 '기르던 개 잡기>사서 직접 잡기>개장사에게 의뢰하여 잡기'의 순을 나타냈다.

Table 3. The pros and cons of edibility of dog meat

	Sex	Age							Total	(%)	χ^2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Seventies			
Yes	M	3	185	220	234	167	55	18	882	92.3	
	F	6	95	54	62	50	14	8	289	72.1	
No	M	3	29	16	14	9	2	1	74	7.7	
	F	3	29	29	34	10	4	3	112	20.8	
Total	Yes	9	280	274	296	217	69	26	1,171	86.3	*97.357
	(%)	60.0	82.8	85.9	86.1	91.9	92.0	86.7	86.3		
	No	6	58	45	48	19	6	4	186	13.7	
	(%)	40.0	17.2	14.1	13.9	8.1	8.0	13.3	13.7		
Total		15	338	319	344	236	75	30	1,357	100	

χ^2 = **20.687

* p<0.001, **p<0.001: M, male: F, female

Table 4. Reason of the objection to edibility of dog meat

Reason	Sex	Age							Total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Seventies	
Barbarious	M		11	3	2	4			20
	F	1	9	14	6	4			34
Inhumane	M	2	15	5	5	6		1	34
	F	1	11	10	14	4			40
Unsanitary	M	1	6	1	3	4	1	1	16
	F	2	6	5	5	2	1	2	23
Feeling ashamed of foreigners	M		5	2		1	1		9
	F		2	4	2				8
Creepy	M	1	9	2		1	1		14
	F	1	9	7	11	3	1	1	33
Religion(prohibition of killing animal)	M		5	3		4			12
	F		5	11	14	4	2		36

M, male: F, female

가장 시끄러운 문제로 등장하는 '개 때려잡기(기르던 개 잡기)'는 남자는 12.6%, 여자는 23.8%로 합치면 평균 16.4%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공격하는 주요 이유인, 개를 때려잡기 때문에 동물학대이고 야만적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도살의 82%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문적 방법, 즉, 고통없이 즉시 죽이는 비학대적인 방법으로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는다고 반드시 때려 잡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7. 개고기 식용 찬성에 대한 이유

이상의 예를 내용으로 개고기를 먹는 이유와, 개고기 식용 비판에 대한 반대 이유에 대하여 1,502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고유의 우리 음식문화인데 왜 남이 시비거는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 '맛있기 때문에>정력과 건강에 좋아서>서양문화의 우월주의이기 때문

Table 5. Recognition on edible dog

	Sex	Age							Total	(%)	χ^2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Seven-ties			
Yes	M	5	171	182	190	127	45	11	731	79.5	
	F	9	83	52	75	37	13	5	274	64.9	
No	M		44	56	32	39	10	8	189	20.5	*32.467
	F		41	31	42	23	5	6	148	35.1	
Total	M								920	100.0	
	F								422	100.0	

* $p<0.001$: M, male: F, female

Table 6. How to buy and to slaughter dog

How	Sex	Age							Total	(%)
		Tee-ns	Twen-ties	Thir-ties	For-ties	Fif-ties	Six-ties	Seven-ties		
Buying and killing dog in person	M	3	37	31	45	28	8	4	158	19.6
	F		20	6	13	6	3		48	14.5
Buying a slaughtered dog	M		94	119	93	86	31	7	430	53.2
	F	5	56	25	36	34	8	5	169	50.9
Slaughtering a breeding dog	M		31	22	23	23	24	8	108	12.6
	F	1	41	8	17	6	1	5	79	23.8
Asking a dog breeder to kill dog	M		27	25	30	23	7		112	13.9
	F		13	6	13	4			36	10.8
Total	M								808	
	F								332	

M, male: F, female

에 > 왜 우리 나라에만 시비거는가 > 소나 돼지를 잡아 먹어도 되고 개는 어째서 안 되는가 > 식용견이 별도로 있다' 등의 순을 나타냈다. 답은 여러 개라도 상관 없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고기가 맛있기 때문에 먹는다는 답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개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다른 어떤 고기보다 개고기가 맛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고기 식용을 야만적이니 혐오식품이니 평가 절하하여도 개고기가 맛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보신탕집이 성업중인 것이다. 맛이 없었다면 남들의 공격을 받기 전에 개고기가 사라졌을 것이다.

고 찰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문화의 본질이다. 따라서 집단이나 사회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며 문화는 상대적이므로 다른 문화를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서구의 음식문화는 다른 음식문화를 혐오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먹거리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비난한다는 것은 우매한 편견이다.

우리 나라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유의 음식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일부 극단적 동물보호단체는 이를 비난하여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과 2002년 월드컵 대회 불참으로까지

Table 7. The reason for favoring edibility of dog meat

	Reason	M	F	Total
A	One country's food culture is inherent, not an object of criticism from other country.	531	222	753
B	For its deliciousness	437	124	561
C	Good for health and energy	368	102	470
D	Because of the wrong predominance way of thinking that while Westerners can kill cow and eat it, what Koreans can't kill and eat dog is the idea that Oriental culture is vice and Accidental culture good.	312	117	429
E	It is prejudiced that that though Chinese and other contries eat dog meat, only Koreans are criticized.	286	98	384
F	It is a bias that although all the creatures have one root, and have the same forefather, killing pigs and cows can be possible, and that killing dog is prohibited is partial.	255	110	365
G	Not killing pet, but killing an edible dog which is exceptionally bred.	254	105	359
H	It is a submissive idea to turn Bosintang(dog meat soup) restaurant out to the outskirts.	252	87	339
I	Not because dog can't be extinct by killing and eating dog.	190	56	246
J	While killing cat, abandoning breeding dog, pretending not to know the agony of dying man, spending much money on beautification of dog, and feeding them expensive food, attacking conduct to others who kill and eat dog is compared to that of the man who is much filthier finds fault with the person less filthy.	145	77	222
K	Dog meat is eaten immediately boiled after death, not to be kept frozen, because frozen dog meat tends to lose its taste, so it is sanitary.	135	40	175
L	Urging not to kill dog is Westerner's trick to increase their amount of beef export.	129	27	156
M	Dog is a beast, and many historical evidences show that watchdog for captives, fighting dog, hunting dog, watchdog for prisoners, etc killed and ate man. In spite of this facts, while dogs are to kill and eat man, prohibiting from killing dog is contradictory.	103	26	129
N	In Western country, thousands of hundreds of dogs are deserted. The hygienic problem dogs cause and that of abolishing dogs cost too much. Killing and eating dog can solve such troublesome problems. That is to say, such way is a friendly relation to environment to be sought for.	90	19	109
O	That dog follows man is only a flattery to the strong.	64	15	79
P	To kill dog is to prevent hydrophobia and parasite which carry disease.	54	10	64

M, male; F, female

여론을 몰아가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개고기 식용을 혐오하는 사람들 일부가 여기에 동조하여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하여 개고기 식용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므로 먹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86.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개고기 식용논쟁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가축의 하나인 개를 먹는 데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고 다른 나라 사람이 비난한다고 하여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주권을 팽개치는 사대적인 일이다. 즉, 외국사람이 김치냄새를 싫어한다고 하여 국민들에게 김치를 못 먹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개고기 식용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시각은 외국의 영향으로, 사대주의의 발로이다. 개고기 식용 논쟁이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방식 때문이다. 정부는 개의 도살과 식용을 법으로 인정하고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양성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자니 외국인들의 비난이 신경쓰이고 강제적으로 금지하자니 국민들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새로 개편된 국제무역질서에 따라 우리 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개고기 식용을 견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이다.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쇠고기를 많이 수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 약

성인 남자 963명, 여자 539명, 총 1,502명에게 개고기 식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 일차적으로 연령별, 성별로 나누고 SAS 시스템으로 통계처리하였다. 그 결과, 개고기를 먹어본 경험은 평균 83%였고, 그중 남자는 91.9%, 여자는 67.9%였다. 개고기를 먹게 된 이유는 남자는 '남을 따라 보신탕집에 가서'가 34.7%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집에서 먹기 때문에 따라 가서'가 25.6%로 가장 높았다.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는 평균 86.3%가 찬성하였고, 그중 남자는 92.3%가, 여자는 72.1%가 찬성하였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남녀 모두 '비인간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식용견을 별도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남자는 79.5%가, 여자는 64.9%가 알고 있었다. 개고기 구입은 남녀 모두 '시장에서 잡아놓은 것을 사온다' 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개고기 식용 비난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첫째로는 남녀 평균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이므로 남들이 시비걸 수 없다'가 가장 많았고, 둘째로는 '맛있기 때문'이었다.

알 림

본 논문의 통계는 대전보건대학 피부미용과의 노영희 교수가 처리해 주었다. 이에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1. 崔漢綺 : 8册 畜牧(犬), 農政會要 (1830年頃).
2. 朴興生 : 上卷에 取犬, 撮要新書, 高宗 31年 (1894).
3. 撰者未詳 : 養狗方, 木辛(자)圓詩集(畜產篇), 哲宗年間 (1849~1863).
4. 金孝統, 盧仲禮, 朴允德撰 : 鄕藥本草各論 獸部中品, 鄕藥集成方, 世祖 15年 (1433).
5. 金蓮淳 : 六月伏日 狗醬, 洌陽歲時記, 純祖 19年 (1819).
6. 西有渠 : 怡雲志 8卷 節辰賞樂, 林園十六誌, 純祖 27年 (1827頃).
7. 洪錫謨 : 六月三伏 狗醬, 東國歲時記, 憲宗 15年 (1849).
8. 張志淵 : 六月三伏의 食狗醬, 朝鮮歲時記 (1916~1917).
9. 石溪夫人 安東張氏 : 魚肉類,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 肅宗代初 (1670年頃).
10. 洪萬選 : 魚肉, 山林經濟, 肅宗41 (1715).
11. 柳重臨 : 四時纂要 六月에 蒸狗, 肉膳治法에서 犬, 增補山林經濟, 英祖 42年 (1766).
12. 憑虛閣李氏 : 卷 1, 禮記八珍, 製1門 主食議, 閨閣叢書 (1815年頃).
13. 斗庵老人 : 民天集說, 飮食門에서 飪肉法(犬肉), 英祖28年(1752), 純祖 22年 (1822).
14. 西有渠 : 鼎俎志 食鑑撮要 獸類, 割烹之類, 節食之類, 佃魚志 1卷 2 牧養 狗, 3卷 弋獵, 魚釣 鷹犬, 林園十六誌, 純祖27年 (1827頃).
15. 李圭景 : 卷3 蒸狗法, 狗炙, 卷28 行園飮膳 狗足 및 狗尾, 五洲衍文長箋散稿 (1850年頃).
16. 李用基 : 국끓이는 법,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永昌書館 (1943).
17. 北川左人 : 風俗 및 習慣, 朝鮮固有色辭典, 京城ウサギ文庫 (1932).
18. 崔永年: 中篇 食狗臘, 海東竹枝, 京城 奬學社 (1925年).
19. 徐命膺 : 造酒法, 飪魚肉法, 攷事新書 (1771).
20. 徐浩修 : 魚肉, 海東農書 (1799年).
21. 李退溪 : 手蹟本 戊戌酒, 活人心方 (1400년대초).
22. 徐命膺, 西有渠撰 : 11. 集成 56 중 獸肉飪法, 酒齊造法. 攷事十二集, 正租11年 (1787).
23. 許浚 : 東醫寶鑑, 光海君 3年 (1611).
24. 撰者未詳 : 湯部, 是議全書 (1800年代末).
25. 안용근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4), 387~396 (1999).
26. 안용근 : 한국의 개고기 음식에 대한 고찰,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4), 397~408 (1999).
27. 안용근 : 한국인과 개고기, 효일문화사 (2000).
28. 장지민, 박사규, 이경주 : SAS/PC를 이용한 통계자료분석, 범문사 (1996).

(2000년 8월 15일 접수)